

##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시행방안

전 혜 인\*

---

### << 요약 >>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상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 의해 행해지는 동료상담(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도 이들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1조).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이 취지에 맞게 실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의 정의, 법적근거, 국내외 실행 사례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가족지원,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부모결연프로그램

### 1. 서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양육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 습득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발달장애의 장애 특성 상 더 많은 양육의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와 비교하였을 때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의 필요가 크고 연령이 증가하여도 그 지원의 요구가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

\*제1저자: 건양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hjeon@konyang.ac.kr)

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는 더욱 세심한 심리적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2년 ‘발달장애인지원계획’ 수립하고 제 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에 ‘발달장애인 지원강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장애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온 것과는 달리,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정 장애유형만을 대상으로 하고,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요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정책적으로 구현될 서비스 및 관련 제도는 ‘성년후견제’(제9조),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제11조),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관한 신고의무’(제15조) 및 ‘보호조치’(제17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제26조), ‘보호자 상담지원’(제31조)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 ‘보호자 상담지원’(제31조)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상의 관련서비스 지원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가족지원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법률 제31조), 전문 상담의 대상에 있어서도 개인뿐 아니라 부부 및 가족 심리 상담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 의해 행해지는 동료상담도 이들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1조).

이에 따라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들 중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 동료상담을 통하여 많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과 복지지원의 많은 내용들이 그 동안 국내에서 시도된 바가 없거나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육구에 조응하는 서비스 개발 및 제도 정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법에서 새롭게 제안된 서비스 중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의 정의 및 범위, 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정의,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정의 및 법적 근거

### 1. 국내 법적 근거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가 겪게 되는 다양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1조에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서 전문가에 의한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 ‘동료 상담’을 시행규칙(제21조)에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다.

■ 발달장애인법 제 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제21조(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이하 "심리상담 서비스"라 한다)는 개인 심리상담, 부부 심리상담 또는 가족 심리상담, 동료 상담 등으로 한다.

[그림 II-1] 발달장애인법 제 31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동료상담이 가지는 의미와 정체성과 관련하여 동료상담 ‘지원 부모’의 자격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체계와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동료 상담서비스가 향후 제공된다고 할 때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정의

발달장애인 부모들 간 동료 상담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앞서 일반적인 동료상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Gray와 Tindall(1978)은 동료상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비전문가들이 취하는 다양한 대인적인 조력행동’으로 정의하였다. Painter(1989)는 동료상담(peer counseling)에서 충고보다는 공감과 존중감을 지닌 채 또래들에게 경청하는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동료상담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상황과 자신에 대한 각성을 촉진시켜 자기 자신이 해결책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료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공감적 영역이 많다는 점, 동료상담자 자체가 내담자에게 바람직한 모델이 된다는 점, 전문적인 상담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개역할을 한다는 점, 동료상담자 자신의 인격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의 많은 장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동료상담자들은 상담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의 범위와 한계,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이 필요하다(유근준, 2001). 즉, 동료상담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만 이는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대치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김광은, 1992). 또한, 동료상담 시 지켜야할 규칙으로 대등성, 비밀보장, 무비판적 사고, 충고나 조언 금지와 같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담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대등성이라 하겠다(정지훈, 201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2011).

동료상담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기간 및 내용에 대해 Allen(1973)은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은 비슷한 가치나 생활경험의 공유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훈련으로 동료상담자의 자치 체계가 변화되는 경우 오히려 동료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여러 연구의 예를 살펴보면 동료상담자 교육프로그램의 시간으로는 일반적으로 10~20시간정도이며, 많은 경우에 30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함을 알 수 있다(김광은, 1992; 김정희, 1990; 오정인, 1993; 이수용 등, 1990; 장혁표, 1986; 추석호, 1987; 홍경자, 1985; Tindall et. al., 1985; Frisz, 1986). 일반적으로 동료상담자 훈련에서는 전문적인 상담 실습자 교육에서 선수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론교육보다 구체적인 상담 기술 및 동료상담자가 감당해야 할 실무적인 내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상담기술 및 실무적인 기술 습득을 위해 공통적으로 경청하기, 관심기울이기, 온정표시와 공감하기 등과 같은 의사소통기술훈련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대상 집단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세부적인 문제 영역의 교육 및 훈련 내용이 제공된다.

한편, 위기에 처한 가족지원에 있어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회복력(resilience)에 기반한 입장은 아무리 취약한 가족이라도 모든 개입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가족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은 회복력(resilience)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 가족들도 가족 고유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같은 어려움을 직면하여도 이에 대해 대처하는 양상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에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은 이러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회복력(resilience)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전문가 주도의 심리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에 처한 비전문가 발달장애인 부모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과 유사한 해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실행되고 있는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을 들 수 있다. 부모결연 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s)은 장애아동의 부모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다른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과 정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부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이 된 경력 있는 장애아동 부모와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서툰 부모를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 지원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Santelli, Turnbull, Marquis, & Lerner, 1997). 여러 문헌을 통해 부모결연프로그램의 의의와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Ireys et al., 2001; Santelli et al., 1997; Santelli, DiVenere, Yoder, & Carolis, 2000; Santelli, Turnbull, Marquis, & Lerner, 2000; Santelli, Poyadue, & Young, 2001; Singer, Marquis, Powers, Blanchard, Divenere, Santelli, Ainbinder, & Sharp, 1999), 현재 미국의 모든 주(state)에는 지역단위 및 주 차원(statewide)의 부모결연프로그램이 마련되어 15만 명 이상의 장애아동 부모가 참여하고 있다(Beach Center on Disability, 2015).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s)에서 맺어지는 결연 짝을 통해 얻게 되는 지원이 기관 및 전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원과 비교하여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 중 중요한 점으로 부모결연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되는 지원은 제한된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지원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24시간동안 언제든지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것이다(Santelli, Poyadue, & Young, 2001). 또한 부모결연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은 매우 개별적이며 지원을 받는 사람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즉 아동의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고 결연을 맺기 때문에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와 지원을 제공받는 부모가 장애자녀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이 유사함으로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서적 및 정보적 지원은 매우 구체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은 같은 입장의 비전문가들이 서로 조력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동료상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의 부모가 같은 장애인의 부모에 대해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외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과 유사하다. 즉,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 동료에 의한 상담'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에게 유사한 장애자녀를 키워낸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가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다.

### III. 국내외 사례 및 선행연구

#### 1.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관련 해외 사례

##### 1) 미국 사례

미국의 경우 장애아동 부모상담과 부모교육에 관한 내용은 미국의 장애인교육법 (IDEA)의 Part B에 해당하는 관련 서비스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자녀의 특별한 요구를 이해하도록 부모를 도와주고, 아동의 발달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해 주고, 개별화교육계획(IEP)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부모를 도와주는 것’(34 C.F.R Sec. 300. 24(b)(7))이 포함된다. 미국에서 장애아동 가족지원 대상은 생후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미국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가능 연령인 만 21세까지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며, 이를 넘어선 성인기 장애인에게는 가족지원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별 서비스지원 개념으로 접근한다.

0~3세 영유아의 부모는 가족훈련, 상담, 가정방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기타 전문가가 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가족의 이해를 높이고 아동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다(34 C. F. R. Sec. 303. 112 (d)(3)). 장애아동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부모-아동 상호작용, 여러 가족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 아동발달을 고취시키는 문제해결력, 아동과 가족이 최상의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

한편, 장애아동 가족의 정서적 지원 방법 중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은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으로 유사한 경험을 지닌 가족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Parent to Parent of the United States (Parent to Parent USA)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Parent to Parent of the United States (Parent to Parent USA) 개관

미국의 Parent to Parent USA은 1971년에 처음으로 Nebraska 주의 사회복지사 Shirler Dean가 장애아동 부모들이 다른 부모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여러 주에서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이 생기게 되었고, 1992년 Betsy Santelli가 국가차원의 부모결연프로그램 연구를 실행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그 후 2003년에 연

방정부 차원에서 Parent to Parent of the United States (Parent to Parent USA)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부모결연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약 15만 명의 장애아동 부모들이 매년 7천명 이상의 지원 부모들과 짝을 이루어 만남을 가진다.

2015년 현재 주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34개가 있고, 주 단위 이하의 행정단위 및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수백 개가 넘는다.

#### (2) Parent to Parent USA 재정

Parent to Parent USA의 재정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및 주 정부의 보조금, 수익사업, 회원들의 회비(민간의 경우)으로 충당되고 있다. Parent to Parent 프로그램은 각 주마다 지원단체가 있으며 해당 단체에서 지원부모를 훈련시킨다.

일례로, 워싱턴 주의 Parent to Parent 프로그램은 단체(the arc of Washington state)로 들어오는 기부금에 의하여 일부 진행되며, 장애아동 부모는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http://arcwa.org>),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소한의 기부(50달러)를 통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기부금은 기꺼이 허용되고 모든 교육비 및 운영비는 무료로 진행된다(<http://www.php.com>).

#### (3) Parent to Parent 지원 부모 자격과 교육

미국의 Parent to Parent 는 각 주마다 시행되는 방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원부모의 자격과 지원부모를 위한 교육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특징이 있다.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가 사전에 받는 교육은 1~2시간(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1시간, 뉴욕 주는 2시간)에서 길게는 2박3일(비영리단체 CHADD)까지로 이루어진다. 교육방법은 온라인교육 및 직접수강(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총2시간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시행된다.

교육내용 역시 주 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원 부모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상담의 기초, 스트레스 대처방법,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을 교육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표 III-1>와 같다.

#### (4) 지원받는 부모와 지원하는 부모 연결

미국에서는 매년 약 15만 명의 장애아동 부모들이 매년 7천명 이상의 지원 부모들과 짝을 이루어 만남을 가진다. 즉, 교육을 받은 선배부모 1인이 평균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후배부모 2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와 지원을 받는 부모를 연결해주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1) 자녀의 장애 유사성, (2) 비슷한 연령의 장애자녀, (3)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가족, (4) 유사한 가족형태, (5) 24시간 이내 지원에 응할 수 있는 부모, (6)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거주 할 것.

<표 III-1> Parent to Parent 교육 사례

구분	교육내용
캘리포니아주*	부모연결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
	진단에 적응하는 법
	지원 부모의 특징
	지원받는 부모와 통화하는 방법
	효과적인 청취 기술
	추가적인 전문가 도움을 받게 하는 방법
버지니아주**	상호 지원 능력과 자기성찰
	청취 기술과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 파트너/가족 네비게이터의 역할
	지역 사회 자원과 서비스 이해
	부모연결프로그램과 프로토콜의 이해
새로 습득한 기술에 대한 연습, 협업 및 협상 기술	

<출처: \*Parents Helping Parents([www.php.com](http://www.php.com)), \*\*Parent to Parent of Virginia ([www.ptpofva.wordpress.com](http://www.ptpofva.wordpress.com)) >

일례로 뉴욕주 부모결연프로그램의 경우 지원 부모 짝 선정 시 코디네이터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표 III-2>뉴욕주 부모결연프로그램 내 코디네이터의 역할

구분	내용
지원 부모 짝 선정 시 코디네이터의 역할	다른 가족과 맺어지기를 요구하는 부모의 모든 적절한 정보를 얻도록 함
	지원 받기를 원하는 부모를 위해 적절한 지원 부모를 찾음
	선택된 지원 부모에게, 지원이 필요한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어봄
	만약 지원 부모가 지원을 받을 부모를 받아들인다면, 코디네이터는 지원 부모에게 지원받는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지원 부모가 지원받는 부모에게 48시간 내에 전화할 수 있도록 함
	지원받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지원 부모의 이름과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통화하도록 독려함
	양측의 부모들은 그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를 상의한 후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함
	만약 두 부모들 모두 동의하면 이 연결은 성사된 것임
	한쪽의 부모라도 다른 파트너를 원하면 코디네이터는 더 좋은 파트너를 찾도록 함

(5) 지원 부모가 지원받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

지원 부모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다른 가족들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없는 지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원 부모는 의사의 진단이나 또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지원 부모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또한 지원 부모가 요청을 하면 지원제공 인력풀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미주리주에서 지원 부모가 제공하는 지원의 예를 보여준다.

<표 III-3> 미주리주 부모결연프로그램 내 지원부모의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지원 부모가 제공하는 것	듣고 이해하기
	장애 또는 특별한 건강관리의 필요에 대한 정보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한 정보
	자신의 경험 이야기

## 2.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 관련 국내 사례 및 선행연구

### 1) 동료상담 관련 국내 사례 및 선행연구

#### (1)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동료상담

우리나라에서의 동료상담은 1980년대 이후 실시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일선 중고등학교에 또래상담자프로그램이 제작 보급되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비행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동료상담(peer counseling)을 부르는 명칭이 동료 상담과 또래 상담이라는 두 가지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또래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규섭(1988)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한 상담과 전문가에 의한 상담의 효과를 비교하였는데 두 집단 모두 자아실현 향상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김태창(1985)과 정춘옥(1989)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동료상담의 효과를 밝혔다. 청소년을 위한 동료상담(또래상담) 교육은 1994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되어 2000년에 개정된 또래상담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 때 동료(또래)상담자의 교육 시간은 12시간 과정으로 ‘좋은 친구되기’ ‘대화하는 친구되기’ ‘도움주는 친구되기’ 라는 주제의 집단토의, 역할연습,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료상담이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으로 적용된 것은 1980년대부터이며 대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동료상담이 실시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김정희, 1990; 이관용, 김순화, 1983; 이형득, 김정희, 1983; 장혁표, 1986; 최은영, 1991; 홍경자, 노안녕, 1985). 대학생들에 대한 동료상담은 일반적인 학교 적응과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실행되기도 하였으나 실연 지지집단 동료상담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위한 동료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황혜리, 2002).

## (2) 다양하게 적용되는 동료상담

동료상담이란 ‘비슷한 경험 및 가치관을 지닌 동료가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그 발달과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루어 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제반 영역에서 지지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로서(구본용, 구혜영, 이명우, 1994), 동료상담은 청소년 뿐 아니라 결혼이주자, 사관생도, 군 장병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효과성이 밝혀졌다.

김광은(1992)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받은 생도들이 다시 동료생도들에게 동료상담을 실시하게 한 연구에서 동료상담자들과 그들에게 훈련을 받은 생도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자아개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군 장병을 위한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고(양미진, 송미경, 신호정, 2009), 군 장병들이 동료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건강을 얻고 군대 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었을 밝힌 연구(양미진, 송미경, 신호정, 2009) 도 있었다. 또한, 한숙자(2011)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 중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3) 장애인 동료상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공유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으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얻는 것은 자기의 장애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출발점이 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기본 사업 중 하나인 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라는 공통된 경험을 지닌 내담자와 상담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장애인 자신이 동료장애인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장애로 인해 생겨난 문제 및 욕구를 바탕으로 독립이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 혹은 집단 상담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4a).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동료상담은 단순히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4b).

장애인을 위한 동료상담의 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는데(김순영, 2011; 임기현, 2003; 정지훈, 2013), 임기현(2003)에 의하면 동료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자립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었으며, 김순영(2011)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상담 교육을 통해 자립생활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지훈(2013)은 동료상담서비스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고하였다.

## 2)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관련 국내 사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다른 장애인의 부모에 비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도움의 정도가 크고 자녀가 성장을 하여도 양육과 관련한 요구와 부담이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신의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 않으며 역량강화(empowerment)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전혜인, 2010; 전혜인, 박지연, 2004).

국내에서는 전혜인(2005)의 연구가 처음으로 발달장애아동 부모들 간의 부모 동료상담의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그 효과를 밝혔는데, 자신의 장애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낸 발달장애아동 어머니가 미리 일정시간동안의 교육(의사소통 방법 및 장애에 대한 조망, 구체적 정보 등)을 받고 어린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일대일로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만남(일대일 대면 만남, 집단만남, 전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지원을 제공하는 부모결연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참여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가족역량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의 어머니들에게 부모결연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힌 연구들(전혜인, 박지연, 2005; 전혜인, 박지연, 2006)도 있다. 전혜인과 박지연(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결연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을 실시한 결과, 어린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결연활동을 통하여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었으며 정보를 획득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람과 만족함을 경험하였고, 결연활동에 참가한 성장한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결연활동을 통하여 지난날을 회상할 수 있었고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였으며 보람을 느꼈고 스스로 성장하였으며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즉, 발달장애아동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은 부모에만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지원을 제공한 부모 역시 정서적인 면에서의 긍정적 효과와 역량강화를 경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2012년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된 ‘행복 플래너 사업’에서도 부모결연프로그램(Parent-to-Parent Programs)이 실시되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발달장애 자녀(장애위험 유아 포함)를 둔 부모들과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부모결연활동가)가 어린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교육기관 관련 정보나 지역사회 이용 정보 및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의 현실적인 양육정보와 조언을 포함하는 지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니 지원받은 어머니들이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과 효능감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2014년~2015년 장애인부모동료상담가 양성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장애인부모동료상담가 양성사업의 목적은 양성과정을 통하여 배출된 전문 장애인부모상담사가 동료 장애인부모의 양육고충을 덜어주고 동료상담사 자신의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며 장애인부모의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15주 동안 8학점(교과목: 장애인복지와 개발, 상담의 이론과 기술, 상담의 실기) 120시간의 이론 강의의 수강과 120시간의 현장실습, 12건의 상담일지 작성을 통하여 장애인부모동료상담가를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전문 장애인부모상담사가 의뢰된 장애부모를 상담하는 방법을 취하였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

## IV. 시행 방안

본 절에서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의한 동료상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목적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은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유사한 장애자녀를 키워낸 발달장애인 부모가 정서적 지원 및 정보적 지원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부모(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효능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역량강화. 둘째,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심리적·정서적 지원 제공. 셋째,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관련 정보 제공. 넷째, 발달장애인 부모들 간의 지지체계 구축 .

### 2. 부모 동료상담 활동 자격 기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료상담 활동을 제공하는 부모의 자격기준을 둘러싸고 서

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부모 동료상담’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 동안 정책적으로, 복지실천 현장에서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은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상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가 정보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부모 동료상담은 일반적인 전문 상담가와 피상담자 간의 관계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부모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력적인 활동에 가깝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공감에 기초한 정서적 지원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 상담 지원 부모로 활동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을 전문 상담가가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처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동료 상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다양한 부모들이 참여하고 동료적 지지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P2PUSA(parent-to-parent program USA)는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이수하는 것으로 지원부모의 활동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최대 2~3일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실시된 몇몇 부모결연프로그램에서도 10시간 내외의 비교적 간단한 교육 후 선배 부모와 후배 부모간의 멘토-멘티 간의 관계를 맺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모 동료상담이 제공된다고 할 때 지원 부모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하여 엄격한 자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경청 및 대화기술, 지역사회자원 이해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시간도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 것을 반영하여 20시간 교육을 최소 조건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3. 부모 동료상담 사업 운영 방안

#### 1) 사업 수행 기관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서비스 제공은 상담지원욕구를 가진 부모와 지원 부모 간의 적절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때,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향후 전국적으로 설치 마련될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맡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발달장

애인 부모단체, 장애인 복지관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2) 사업 내용 및 절차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사업의 실행 방안을 사업내용과 절차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 IV-1]과 같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1) 지원 부모 교육 및 선정, (2) 지원받는 부모와 지원부모 연결, (3) 부모동료상담 실시의 순서로 진행되며, 부모 동료상담 중 ‘모니터링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IV-1] 사업 내용 및 절차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서 사업 수행 기관이 각 단계별로 추진할 주요 업무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지원 부모 교육 및 선정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지할 의사가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 일정정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 부모를 선정하도록 한다.

지원 부모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해외 사례를 준하여 20시간의 사전 부모 동료상담 교육 최소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교육은 발달장애의 이해, 의사소통 기술, 상담의 기초, 스트레스 대처방법, 지역사회 정보 등의 내용에 대한 일정시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시행방안(전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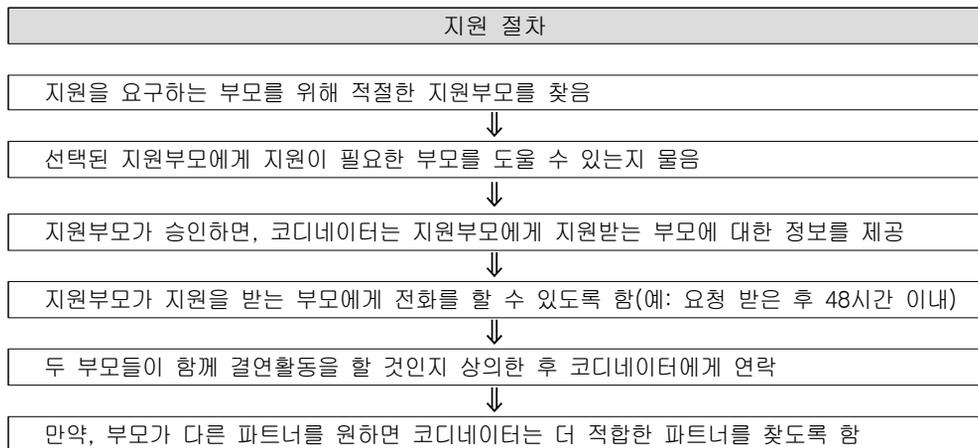
간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하나의 예시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지원부모 사전 교육과정(안)

구분	교육내용	이수시간 (총20시간)
장애와 가족의 이해	장애에대한 전반적인 이해	2
	장애아동 가족이 직면하는 어려움, 적응의 주기	2
상담의 기초	자기 이해	2
	효과적인 듣기 기술, 말하기 기술, 비밀보장의 중요성	3
	스트레스 대처 전략	2
발달장애인 부모동료에 의한 상담 소개 및 지역사회 정보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의 이해	2
	발달장애인 관련 법률 및 권리 등	2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 가족이 활용 가능한 정보	2
상담 실습	상담 실습	3

(2) 지원 부모와 지원받는 부모 연결

발달장애자녀의 장애 유형, 가족 상황, 지리적 근접성, 즉각적 지원 가능성, 자녀 성별 및 기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부모와 지원받는 부모를 연결하도록 한다. 이 연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IV-2] 지원 절차

(3)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실시

지원 부모와 지원 받는 부모 간에 결연관계가 성립될 경우, 담당 코디네이터는 통하여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 진행 내용 및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때 코디네이터는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도록 한다.

<표 IV-2> 동료 상담 방법의 예시

구분	내용
일대일 만남	2주에 1회 이상 만남을 통한 이야기 나누기
집단 만남	지원부모들과 지원받는 부모들의 소그룹 활동
전화 통화	지원부모가 지원받는 부모에게 전화
기타 방법	이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종 SNS활용한 지원

## V. 논의 및 결론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심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법 제 31조에서는 가족지원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리지원서비스에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 의해 행해지는 동료상담도 포함시키고 있다(시행규칙 제 21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향후 발달장애인 부모동료상담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료상담 ‘지원 부모’의 자격,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동료상담 활동을 제공하는 부모의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는 부모 동료상담이 전문적인 심리치료나 상담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부모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력적인 활동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자격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동료상담지원 부모로 활동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전문상담가의 자격조건처럼 엄격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경청 및 대화기술, 스트레스 대처방법, 지역사회자원 정보 등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20시간 정도 이수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부모들이 동료 상담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동료상담 서비스 제공은 상담지원 욕구를 가진 부모와 지원부

모의 적절한 연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전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일임하거나 혹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수행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역할은 지원부모 교육 및 선정, 지원부모와 지원받는 부모의 연결, 부모동료상담 진행 내용 및 과정의 모니터링 제공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에서 새롭게 제안된 서비스 중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의 정의 및 범위, 내용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에 의한 상담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연령별, 자녀의 장애 특성별, 사회경제적 여건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 고 문 헌

- 구분용, 구혜영, 이명우(199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광은(1992). **동료상담자 훈련에 관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순영(2011). **여성장애인의 동료상담 교육이 자립생활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 (1990). Peer Counselor활동에 관한 일 연구. **지도상담**, 14, 43-50.
- 김태창(1985). **또래에 의한 집중적 집단 상담이 남중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보건복지부(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신규서비스 실행방안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5).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서비스의 필요성과 제도화 구축 방향**.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양미진, 송미경, 신호정(2009). **군 장병을 위한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8-31.
- 오정인 (1983). **도움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비전문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대구.
- 유근준 (2001). **기독교인의 동료상담자 훈련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관용, 김순화(1983). 대학에서의 동료 카운슬링. **학생연구**, 19, 18-29.
- 이수용, 문길린(1990). **대학생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동료집단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상담**, 14, 1-42.
- 이형득, 김정희(1983). Peer Group Counselor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상담**, 8, 41-63.
- 임기현(2003). **중증장애인의 동료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전혜인(2005). **부모결연프로그램이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 능력강화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0(1), pp.267-280.
- 전혜인, 박지연(2004).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가족지원에 관한 문헌고찰: 1995년-2004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117-137.
- 전혜인, 박지연(2005). **부모결연프로그램에 참가한 정인지체학생 어머니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1(2), 81-109.

- 전혜인, 박지연(2006). 장애아동의 부모를 위한 부모결연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머니들의 경험. **특수교육학연구**, 41(1), 233-252.
- 정지훈(2013). **동료상담서비스와 가족관계가 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춘옥(1989). **상담전문가와 또래상담자간의 상담집단 효과비교**.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산.
- 장혁표(1986). 동료 집단상담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연구보**, 22,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5-49.
- 추석호(1987). **동료집단상담 장면에서 의사소통기술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규섭(1988). **고교생을 위한 또래상담집단과 전문가 집단상담이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은영(1992). **동료상담자에 의한 주장훈련이 대학생의 자기주장과 자아실현 정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한국장애인개발원a(2014). **자립생활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b(201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2011). **행정안전부 지원 전국 장애인활동가를 위한 동료상담가 양성과정 사업 자료집**. 서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숙자(2011).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독교상담전략의 모색**. 복음과 상담. 17, 9-43.
- 홍경자, 김선남(1986). 또래상담자 경험이 또래 상담자 자신의 자아실현도, 인간관계능력, 자기발표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18, 97-116.
- 홍경자, 노안녕(1985). 자아개념 및 자존심에 미치는 또래상담자에 의한 집단 훈련의 효과. **학생생활연구**, 17, 43-59.
- Allen, D. A. (1973). Peer counseling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Journal*, 21, 35-40.
- Beach Center on Disability (2015). <http://www.beachcenter.org>.
- Frisz, R. H.(1984), The perceived influence of a peer advisement program on a group of its former peer advisers, *Personnel and Guidance*, 62, 616-619.

- Painter, C. (1989). *Friends helping friends: A manual for peer counselors*. Minneapolis: Educational Media Corporation.
- Parent to Parent USA. [www.p2pusa.org](http://www.p2pusa.org)
- Santelli, B., DiVenere, N., Yoder, J., & Carolis, K. D.(2000a). Supporting parents: The cornerstone of parent to parent. *Exceptional Parent*, Feb, 66-68.
- Santelli, B., Poyadue, F. S., & Young, J. L. (2001). *The parent to parent handbook: Connecting familie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Inc. Baltimore, MD.
- Santelli, B., Turnbull, A., Lerner, F., & Marquis, J.(1993). *Parent to Parent program: A unique form of mutual support for famil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G. Singer & L. Powers(Eds.), *Families, disabilities, and empowerment: Active coping skills and strategies for family intervention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Santelli, B., Turnbull, A., Marquis, J., & Lerner, E. (2000b). Statewide Parent-to-Parent program: Partners in early intervention. *Infants and Young Children*. 13(1), 74-88.
- Santelli, B., Turnbull, A., Marquis, J. & Lerner, E. (1997). Parent-to-Parent program: A resource for parent and professional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1(1), 73-83.
- Singer, G. S., Marquis, J., Powers, L., Blanchard, L., Divenere, N., Santelli, B., Ainbinder, J. G., & Sharp, M. (1999). A multi-site evaluation of Parent to Parent Programs for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2(3), 217-229.
- Tindall, A. J. & Gray, H. D.(1985), *Peer counseling-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Muncie : Accelerated Development.

원 고 접 수 일: 2018. 5. 10

수정원고접수일: 2018. 6. 15

게 재 확 정 일: 2018. 9. 17

<Abstract>

## A Study on the Counselling Implementation by Parents Colleagu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e-In Jeon\*

Parents and carer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due to the nature of the disability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us require variety practical support including psychological support. According to the 'Law on the Guarantee and Support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Rights (2014)', as part of the support of famil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addition to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by experts, peer counseling by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Counseling by paren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lso described as part of psychological support services for these families.(Article 21 of the Enforcement Rule).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counseling by paren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egal basis, practices of domestic and overseas implementation, and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were presented to ensure that 'counseling by paren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executed.

**<Key Words> Developmental Disability Law, Support Familie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Counseling by Parents ' Colleague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ent-to-Parent Program**

---

\* Professor, Konyang University(hjeon@konyang.ac.kr)